Incruit

- STX 팬오션 합격자기소개서 모음편



PAN OC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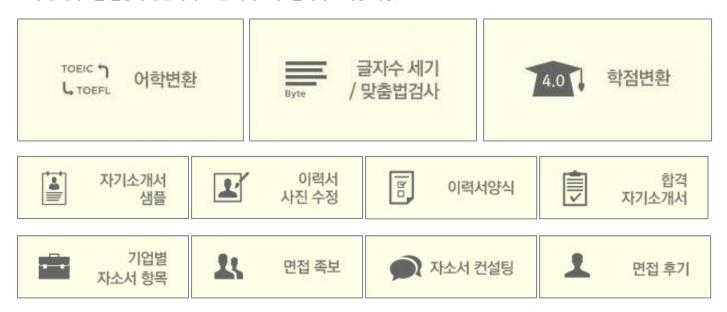
본 자료는 인크루트(www.incruit.com) 공채의신이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저작권은 인크루트에 있으며,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합격 자기소개서 목차		
	기업명(계열사명)	직무
1	STX팬오션	홍보
2	STX팬오션	항해



인크루트 합격자소서 모음집 활용방법!

- 1. Ctrl+F를 눌러, 보고 싶은 기업명(계열사명)이나 직무를검색하여 원하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확인한다!
- 2. 합격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인크루트에서 무료 컨설팅을 받는다!
- 3. 아래 서비스를 활용하여 합격에 한 발 다가간다! (클릭하면 이동 가능)





STX 팬오션 / 직무 : 홍보

→ 원문보기

성장과정.

◆ 대충이란 말은 내 인생의 해충 ◆

"똥 눌 때도 온 힘을 다해라" 어머니가 어린 시절 저에게 자주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이던, 전혀 모르는 분야의 일이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대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으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아니라, 임금을 받는 직원으로써 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매출증대를 이루어야 겠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편의점 일 경험이 있는 친구에서 전반적인 매장 시스템, 제고관리, 서비스 관리등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준비는 첫날부터 어렵지 않게 일을 배울 수 있게 하였고, 단 3일 만에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 가게를 운영한다는 책임감으로 청소, POS관리,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고, 효율적인 재고관리, 매장관리로 인해 사장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의 성격은 저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입니다.

학교생활

◆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

고등학교 시절 "천체관측부" 클럽의 장을 맡으면서, 점차 감소세 이었던 클럽을 살리기 위해 색다른 신입생 유치행사가 절실 했습니다. 기존에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반으로 찾아가서 간략한 클럽 설명만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많은 신입회원을 유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나는 시간의 학교 후문에서, 넓은 담벼락을 스크린 삼아, 각종 성운, 성단, 행성, 항성, 은하수등 아름다운 슬라이드를 투영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야간의 슬라이드 상영은 전해 대비 200% 상승한 신입회원을 유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광고홍보를 전공 함 으로써, 여러 학교의 친구들과 팀을 짜서, 창의성이 중요시 되는 광고공모전에 많은



도전을 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4번의 수상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이 제가 학창시절동안 가장 중요시 했던 마음가짐입니다.

성격

◆ 일에 니일, 내일이 어디 있어? ◆

저는 작년 12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레스페스트"라는 영화제에서 1주일 간 자원 활동을 했습니다. 주 업무는 티켓팅 및 좌석안내등 주로 상영관에 관련된 일 이었지만, 타 부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매일 수백의 관객 앞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제안도 기쁘게 받아 들였습니다. 왜? 저는, 저의 영역의 일을 벗어나 모든 일에 도움이 되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맡은 일만 잘하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나아가, 영화제 전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역을 가리지 않는 활동으로 저는 "우수 자원 활동가"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듯, 개인의 직무만이 아닌, 조직전체를 위해 일하는 저의 책임감 넘치는 성격은 STX라는 거대한 배를 항해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원분야 능력수준

◆ 뒤통수를 잘 치는 나 ◆

뒤통수를 잘 친다니? 뒤통수를 잘 치는 것이 (주)STX의 홍보직무 지원동기를 기술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STX가 2010까지 세계 5대선사, 2대 조선소, 2대 엔진 메이커가 가되기 위해서는 사내,외부와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구축해야 하는 홍보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있습니다.

단순히 언론에 기사를 내보내는 차원의 Publicity가 아니라, 안으로는 사원, 밖으로는 지역사회, 언론, 투자자, 협력업체와의 상호 호혜적인 Public Relations 을 위한 넓은 홍보부의 역할이 필요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점점 홍보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이때, 남들과 비슷한 홍보 전략으로는, 그렇고 그런, 수천의 누런 소떼들 중 한 마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감동을 주는 "보랏빛 소"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자의 뒤통수를 치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홍보 전략 수립이 꼭 필요 합니다.

평소 상대방의 예상을 뛰어 넘는 사고와 행동을 하여 상대의 뒤통수를 잘 치는 저야 말로 홍보 직무에 꼭 맞는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뒤통수치기"는 작년 모화장품 회사 광고공모전 본선 PT때 잘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팀들이 논리적인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별 차이 없는 통계자료를 반복적으로 발표하여, 심사위원들의 흥미와 집중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형식의 발표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 제출한 광고형식이 잡지광고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PPT를



한 권의 잡지처럼 만들었습니다.

손수 잡지기사와 사진을 만들어, 후에 나올 제품의 광고제작의도를 한 권의 잡지를 읽듯이 재미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큰 박수를 끝으로 마친 저의 "뒤통수치기"는 금상 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많은 광고공모전의 도전과 총 4번의 수상으로 단련된 저의 창의성으로 STX를 영원한 "보랏빛 소"로 만들겠습니다.

장래계획.

◆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나 ◆

저는 지금 단지 자기소개서만을 제출 했을 뿐이지만, 현재 저의 머릿속은 STX의 홍보인 으로써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STX의 홍보인 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곧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이공계 대학생 대상 "배 만들기 대회"

STX라는 사명은 개명된 지, 약 7년 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직 타 경쟁사들에게 비해 기업 인지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낮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기업 운영의 측면에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면 그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언급한 "이공계 대학생 대상 "배 만들기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꿀벌, 천사, 잠자리 같은 재미있는 모양의 자작비행기를 만들어 참가했던 영국 버진 항공사의 "인간새 대회"는, 참가자, 구경꾼들의 만족은 물론, 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대중들로 하여금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STX도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물에 뜨지 않거나, 물에 젖는 재료를 이용,독특한 모양의 배를 만들어 물에 띄우는 경쟁을 하는 대회를 개최한다면, 참가자와 구경꾼의 재미는 물론, 자발적인 언론노출이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이는 자연스레 기업 내 조직원의 자부심과 대중과의 관계가 굳건해 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STX 팬오션 / 직무: 항해

→ 원문보기

1. 자기소개

해군장교셨던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때 제 나이 8세. 아버지는 아들의 좁은 어깨를 토닥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친 파도가 너를 강한사람으로 만든단다" 그 후 한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들에게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가 그들 앞에서 당당히 연설까지 했고 그 일련의 과정들은 저에게 있어 큰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2. 본인성격(300자)

헌병대 중대장으로서 100명이 넘는 대원들과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밤이 되면 대원들은 저에게 인생상담을 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근심 어린 얼굴로 들어오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을 모시던 보좌관 시절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항상 YES만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령관님이 진정으로 조직을 위한다면 당당히 맞서서 바꾸고 아닌 것은 "No"라고 외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틀린 것은 "No"라고 당당히 외칠 줄 하는 소신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3. 지원동기

항해사 시절 바다 위의 밤하늘은 저를 위로하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가끔은 해군장교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다라는 곳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함을 정비하는 정비창 창장님의 보좌관을 하던 시절각 건 선거에서 행해지는 정비과정, 기술연구소의 기술 발전과정들을 보면서 바다는 아름다움을 넘어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바다라는 곳은 가능성이 큰 경제시장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해군장교로서 1500톤급 항해사, 정비창장 보좌관, 사령부 훈련과장을 했습니다. 항해사 시절에는 배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정비창장을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 배 수리과정과기술 발전 등을 보았으며, 훈련과장으 로서는 함정요원들을 훈련 시키고, 함 운행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렇듯 운항관리에 업무 시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이과출신 보다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는 입사 후에 선배로부터 혹은 전문서적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서 보완하 도록하겠습니다.

5.



대학시절부터 영어실력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영어 공부는 타임지를 번역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했습니다. 영어회화 공부를 위해서는 해군장교 임관 후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과 매일 20분씩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영어공부를 해왔습니다. 또한 미국영화와 미국신문을 매일 보면서 공부해왔습니다.

리더가 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자생적인 리더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TIME동아리 회장, 총학생회(비운동권) 문화 및 조직국장과 선거본부위원장, 전경련 심포지움 회장, 헌병대 중대장 등을 통해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의 기초인 영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리더십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선배님들을 지켜보고 필요 덕목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습니다.

6.

함정 근무 시절 저의 상관이었던 대위(작전관)은 저와 스타일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저는 부하가 실수를 하더라도 화를 내기 보다는 설득을 위주로 하였고, 대위는 욕을 하거나 화를 잘 내는 스타일 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를 맞아 함정 내부를 환경미화 하라는 함장님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대위는 화를 내며 부하들을 다루고 일을 진행 하였습니다. 저는 휴식시간에 공손히 대위님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제 의견을 받아 주셨고, 무사히 즐겁게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는 그 대위는 저처럼 당신에게 솔직히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